

■ (언론 동향) 2021.11.24. "뉴스1" 보도

○ 이재명 "쌀값 하락, 비료가격 폭등 없게 선제대응"

- "농업은 국민 생명줄..농업 지키는 게 국민·나라 지키는 일"
- "쌀 27만톤 즉시 시장격리해 농업인 걱정 덜겠다"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"쌀값 하락과 비료 가격의 폭등이 없게 선제 대응하겠다"고 밝혔다.

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서 "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 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"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.

이 후보는 "올해 쌀생산량이 전년 대비 10.7% 증가했는데, 쌀소비량 감소추세로 수요 대비 27만 톤이 과잉생산돼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"면서 "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.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"이라고 밝혔다.

그는 "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%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%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"면서 "쌀 27만 톤을 즉시 시장 격리하여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"고 강조했다.

비료 가격의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다. 이 후보는 "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 가격 인상은 농민들에게 큰 걱정"이라며 "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무려 52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"고 설명했다.

그는 이어 "2008년 비료 가격 인상 시 상승액의 70%를 정부와 농업,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다"면서 "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"고 했다.

< 이준성 기자 >